

# 더욱 현실화되는 《검찰공화국》

남조선당국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관리정보단》을 새로 내오겠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넘기겠다는 새 집권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우려하는 《검찰공화국》의 출현이 점점 현실화되고 정치사찰, 정보사찰로 진보세력탄압에 광분하던 독재체제가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검찰공화국》이 출현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관리정보단》을 지휘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된 것은 지난 3년이다.》고 하면서 이전 《정권》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시사했던 자로서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하기에 검찰총장의 한 인물은 《석열이형과 동훈이는 한몸이다. 조만간 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 예측한 적이 있다.

남조선 언론 《한겨레》도 《인사관리정보단》의 신설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검찰인사권을 현 법무부 장관이 본인직속으로 정부고위직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조직신설을 예고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각계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인사검증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정치인, 공무원인사검증명목으로

《합법적》정보수집에 나서면서 검찰권비대화 및 탐욕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로 연결된 《윤석열사단 직할체제》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인사추천과 검증이 분리되어 최소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독점하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검찰이 하나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체제를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동훈장관에게 공직자검증권한까지 부여하면서 그야말로 법무부(상왕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로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를 통해 권력기구를 자기의 심복들로 꾸리는 것과 함께 모든 공무원들의 신상자료를 틀어쥐고 각계 인사들에 대한 무제한한 정치사찰로 독재권을 유지하며 보수 《정권》에 반기를 드는 반대파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 처형하려는 것이 윤석열의 목적이다.

남조선에서 정치사찰과 파썸악당을 열을 올렸던 이전 보수 《정권》과 조금도 다른 없는 협박한 검찰독재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과 조속체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오는 6월 1일에 각 지역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을 선거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야당세력은 이번 선거를 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중요계기로 삼고 민심을 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권안정론》을 내세우며 야당세력의 공세를 차단하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지역들의 자치단체장자리를 따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갖는 회유와 권모술수를 다 쓰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선거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사이의 치열한 대결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그가운데서도 이번 경기도지사선거가 여야사

# 권력쟁탈을 위한 정치시정배들의 개싸움

의 류례없는 혼전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남조선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미지에 상대방의 허점을 물고늘어지면서 고소, 고발로 한판 붙었던 여야후보들은 얼마전에 진행한 TV토론에서도 서로의 부정부패의혹들을 들추어내며 치열한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였다.

지방자치체선거를 둘러싸고 《국민의힘》내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자리를 놓고 후보순위로 출마한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날의 양심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한

정치는 중도층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편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당대표와 안철수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계개선 논의가 없는 기싸움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조선언론들도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대표와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날의 양심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한

의 양보도 없이 서로 마구 공격하며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석열》을 앞세운 《국민의힘》 상층부의 부당한 《공천》강행에 경성북도 군위와 의성, 문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구들에서 지방자치체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당상층부의 불공정한 《공천》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무소속후보로 나서 여당 후보와 치열한 선거경쟁을 벌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권력쟁탈을 위해 치열하게 벌리는 각 정치세력들의 이 추악한 한투구는 부패한 남조선정치의 단면에 불과하다.

본사기자 황금숙

#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남조선에서 심각한 경제위기 가 거세질 줄 모르고 있다.

거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날아다니는 속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점차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마저 동시에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들고 무역수지가

련속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위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원자재공급난에 에너지가 가격의 급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

남조선경제의 《버림목》이라고 하던 제조업의 실례만 보아도 남조선의 경제위기상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남조선경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원조와 차관으로 출발하고 그에 의해 지탱해왔으며 대부분의 원료와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도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제품,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외의 원자재 60% 정도에 달하고 조원자재의 64%, 핵심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제에너지가 상승하고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공급부족은 곧바로 제조업 전반에 강한 타격으로 안겨지게 되었다.

제조업만이 아니라,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의 주요 기업체들의 생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경제형편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지난 4월 한달동안만도 천문학적액수의 외자가 빠져나갔으며 이로 하여 삼정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2470여개 기업들의 주가가 2~6%나 폭락하게 되었다.

한편 원자재가격상승은 수입물가 및 상품가격급등으로 이어져 남조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만에 최저수치인 4.1%에 달하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4월 무역적자가 수십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저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는 대외의존형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하면서 경제정책과제와 경제발전방향을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경제상층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현 경제위기가 심각해져나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생은 양측에 있어 권력을 놓고 벌리는 정치권의 개싸움같은 각목이나 힘을 세 살아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 경제위기를 넘겨주는 《정권》의 정책

얼마전 남조선 집권자가 새 《정부》의 보진복지부 장관후보자로 내정하였던 정호영이 40여일만에 자진사퇴하였다.

그로 말하면 외과의사 출신으로 의사대학시절에 현 집권자와 개인적인 연으로 얽힌 관계로 하여 이번에 보진복지부 장관후보자로 발탁되었다.

지금까지 이자는 《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난 자기의 각종 부정부패의혹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야당의 거세되는 자진사퇴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런자가 갑자기 장관직을 포기한 것은 다가오는 지방자치체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권》의 득과 실, 부패정치에 대한 정계와 민심의 반발을 녹찰하려는 현 집권자와 《국민의힘》 것들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한마디로 정호영이 《정권》안정과 집권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자 가져왔던 차버린 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정호영양조)를 탈어낸 윤석열정부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새 장관후보자를 골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일로 윤석열이 인사검증실때 논란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윤석열이 새 《정부》를 구성하면서 내세운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친미친일사대와 동족대결을 추구하고 파쇼가 살판친 탄압의 파격을 그려워하는 자들, 돈과 재물을 굶어모으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부정부패의 전과자들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라는 자만 놓고 보아도 2012년 미국주재 남조선대사관에서 물러난 이후 10년동안 특별한 직업도 없이 재산을 수백만달러에 불과하고 특히 법률사무 소 고문으로 있는 4년 4개월 동안 남들보다 2배나 많은 월급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가 1997년부터 재산상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을 하면서 800만달러의 서울로 주력들을 사들여 미국회사들에 임대해주고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먹은 수전노라고 한다.

게다가 그의 처 역시 지난 10년동안 재산을 100여만달러나 불리고 처가는 청계천의 대저택을 주전노보다 높게 팔아 수백만달러의 이익을 보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자 역시 집권자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손발노릇을 해왔으며 검찰의 《국회》의원직 개입의혹과 보수언론과의 유착의혹 등에 연루되어 《정치검거》라는 딱지가 붙은 자이다.

게다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서울시내 고급주택을 현 대 미국주자는 행인 《골드만삭스》의 변호사로서 있는 대학동창생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재벌들과 결탁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편 리명박 《정권》은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평양지역 동 동향, 동창들,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아 돈남거리에 들어왔을 자들로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하여 《고소령정부》, 《강부자내각》으로 지탄을 받았다.

지금 현 집권자는 이에 못지 않게 적폐검찰출신, 부정부패전과자, 보수의 열거지들, 자기의 측근들로 《정부》를 구성하여 《부패내각》,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무리 자질이 없고 부정부패의혹을 산같이 안고있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반역정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나 써먹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 집권자의 인사기준이다.

하기에 지금 각계총속에서는 《소통》과 《협치》, 《공정》의 시대를 열겠다던 집권자가 친미친일사대와 동족대결, 부정부패, 너성비하, 력사의곡 등으로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들을 행정부와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들에 등용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단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윤석열이 임기시작부터 인사실 패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행정부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도 부정부패논란에 빠져들어 사퇴하는 것은 윤석열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 적폐검찰출신나방들이, 부정부패의 왕조들이 심복들로 득실거리며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남조선에서 심각한 경제위기 가 거세질 줄 모르고 있다.

거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날아다니는 속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점차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마저 동시에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들고 무역수지가

련속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위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원자재공급난에 에너지가 가격의 급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편이다.

남조선경제의 《버림목》이라고 하던 제조업의 실례만 보아도 남조선의 경제위기상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남조선경제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원조와 차관으로 출발하고 그에 의해 지탱해왔으며 대부분의 원료와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도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제품,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외의 원자재 60% 정도에 달하고 조원자재의 64%, 핵심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금융위기, 국제에너지가 상승하고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공급부족은 곧바로 제조업 전반에 강한 타격으로 안겨지게 되었다.

제조업만이 아니라,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의 주요 기업체들의 생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경제형편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지난 4월 한달동안만도 천문학적액수의 외자가 빠져나갔으며 이로 하여 삼정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2470여개 기업들의 주가가 2~6%나 폭락하게 되었다.

한편 원자재가격상승은 수입물가 및 상품가격급등으로 이어져 남조선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만에 최저수치인 4.1%에 달하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4월 무역적자가 수십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저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조선의 경제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는 대외의존형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하면서 경제정책과제와 경제발전방향을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경제상층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현 경제위기가 심각해져나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민생은 양측에 있어 권력을 놓고 벌리는 정치권의 개싸움같은 각목이나 힘을 세 살아가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혜성

얼마전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아예 것들의 과잉열성때문에 또다시 개교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계기로 자기의 사무실에서 연설문을 작성하는 모습과 연설문조안을 찍은 사진이 기념식직전에 언론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의 실명문까지 다달아, 처음 있는 류출사건도 아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의원명단이 외부에 류출된 사건이 있었고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통채로 공개된 사실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사무실에서 집권자의 사진까지 찍어 내들었으니 시작부터 부실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이 터지자 남조선민심은 벽처럼 쪼그라들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윤석열이 직속

부하들도 제대로 다룰 모르니 자 기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지는 않겠냐고 한다.

《국민의힘》 것들이 굵기야 《대통령실》 참모들이 자기 위상을 파시하기 위해 사진찍어 자랑삼아 언론에 류포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엄격한 조사와 해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노를 피우고 있지만 이미 얼지른 물이고 깨진 사발이었다.

아름다운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 격 일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보수 《정권》의 무질서와 무능,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들은 《정치초년생》 윤석열의 무지무능의 발로이다.

《무능대통령》과 고고고고고 부실 《정권》의 참모들이 앞으로 어떤 해피한 짓거리들을 연출하겠는 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류현철



# 비난받는 《여성실종정부》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또다시 각계층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여성친시, 여성혐오를 윤석열체제의 여성관이며 정책이다.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채용, 임금, 사회적지위 등에서 남성들에 비해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회적약자계층으로 취급받는 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체제는 여성우대정책때문에 남성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남녀갈등, 여성혐오를 더욱 부추기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반여성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윤석열 《내각》에 임명된 18명의 행정부 장관중 여성은 3명뿐이며

차관급인물 40여명중 여성은 고작 3명에 불과한 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에게 장관으로 발탁할만한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했다고 천연스레 뇌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결국 여성이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무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말이라고 하나.》, 《성평등인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책임회피이다.》,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성평등인식을 보여주었다.》, 《윤석열정부가 아니라 윤석열남성중심정부 또는 윤석열여성실종정부라고 불려야겠다.》고 비난하였다.

여성친시, 여성혐오를 벗어난 《여성실종정부》가 여성들의 중요한 자살률은 사회적생활을 하지 못하였다고 천연스레 뇌거했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우며 사회적으로 멸시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정치인들까지 이러한 비속어를 꺼리낌없이 쓰면서 로인문제에 관심조차 돌리지 않고 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 높아가는 자살률은 사회적생활과 갈등, 부패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반인민적정책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며 사회의 1%를 차지하는 특권계층들에게 특혜를 주고 《통합》을 떠들면서 청년, 여성들을 친시, 배척하고 남녀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남조선의 색은 정치하에서 녹아나는 것은 민생뿐이며 그로 하여 반인민적인 사회를 저추하여 국민적인 선례를 하는 자살자수는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춘

남조선 언론 《한겨레》에 윤석열의 인사문제를 분석비판하였다.

—검찰: 견제는 《예스맨》

검찰총장인사를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자리에 이렇게 많이 배치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자기 말만 잘 듣는 《예스맨》을 주변에 둔 것이 결국 부패망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교: 10년전 정책이야기 반복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은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다. 선후배관계로 끈끈하게 묶이는 이들이 다시 경제권력의 중심이 됐다. 재정, 금융관료가 마피아처럼 일종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퇴직이후에도 대기업, 금융회사로 옮겨가 《정부》관료들과 유착관계를 이어가던 흐름이 윤석열 《정부》에서 되

《인사문제로 불은 오명들》

살아난셈이다.

—MB: 다시 MB 인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는 리명박(MB) 《정부》의 그림자다. 내각의 장, 차관급 인사도 MB때의 청와대근무 경험이 《현격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핵심자리는 검찰출신이 됐지만 검찰이 잘 모르는 자리는 《MB 라인》의 옛날 친분을 따라갔다.》고 하였다.

—서울대와 지인: 능력이라는 《학력 서열화》

서울대 출신비중도 47%로 늘어났다. 윤석열이 강조한 《능력》이 사실상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력 서열화》를 뜻함을 보여 주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정, 금융관료는 36%, 수도권 출신은 29%로 늘었다.

—남성: 《국민의힘》도 당황한 무배려 인사

윤석열의 첫 인사에서 여성은 9%에 불과했다.

년령별로 보면 30대는 아예 없고 40대는 3%에 그쳤다. 평균 나이는 57살이었다. 윤석열의 인사에 여성과 청년은 없고 《아는 사람》만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은 《남당인선에 청년은 찾아볼수도 없는 내각구성에 개헌을 금할수 없다.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여성인재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여성인재를 찾을 의지가 없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검찰출신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살아온 것을 한번 보라. 윤석열은 원래 옷사람을 제치는 사람이다. 이제 대통령이 되니 국민을 제치려 한다.》

그런데 국민이 제친다고 제치지 않는다.

인사문제로 예측되는 윤석열 《정부》의 5년에 대한 평이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자살률이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17년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들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자살률은 10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이 기간 자살자수가 6911명에서 1만 5906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자살문제이다. 10대 청소년들의 사망인원 1위가 자살인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자살하는 10대가 3배나 많다고 한다.

자살은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사망인원 1위이기도 하다. 20대 여성자살자의 58.4%가 10대부터 정신적문제로 우울증을 앓았으며 나중에는 자

살의 길에 들어선다고 한다.

그 원인에 대해 남조선의 한 교수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폭력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들의 사회적활동참가율이 줄어

7.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강력범죄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들의 사회적활동참가율이 줄어

히 늘어났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리한 진실이다.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사회적응과 조건의 보장되지 않았고있다고 평가하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내각》에 임명된 18명의 행정부 장관중 여성은 3명뿐이며

짧은 세대만이 아니다.

로인들도 심각한 경제난, 가정불화, 건강문제 등으로 자살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못해 극단적선택을 하고있다.

로인들은 《돌봄》(돌이를 딱딱거린다는 뜻)으로 불리

# 썩고 범든 사회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자살자들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밝힌데 의하면 한부모가족, 장애인, 성추행 등의 성폭력피해자를 받았다고 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18.5%에 달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5만 270여건으로서 2011년 6880여건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리한 진실이다.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사회적응과 조건의 보장되지 않았고있다고 평가하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늘어났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리한 진실이다.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사회적응과 조건의 보장되지 않았고있다고 평가하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짧은 세대만이 아니다.

로인들도 심각한 경제난, 가정불화, 건강문제 등으로 자살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못해 극단적선택을 하고있다.

로인들은 《돌봄》(돌이를 딱딱거린다는 뜻)으로 불리

본사기자 김영춘